



일본의 건강수명 연장 주요 정책

이상우 수석연구원

일본 정부는 체계적인 국민 건강관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차 산업과 연계한 건강수명 연장 정책을 발표함. 시험단계를 거쳐 2025년부터는 통합의료정보 구축에 의한 빅데이터 활용, 기업이 종업원 건강점수 관리, 대면·원격진료 보편화, 의료용 AI 활용, 수요자 니즈에 부합한 간병로봇이 적극적으로 보급될 전망임

■ 일본 아베정부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포함 5개 전략분야에 집중투자 실시하는 미래 투자전략 2017 을 발표함¹⁾

- 미래투자전략²⁾은 아베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투자회의³⁾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제시한 성장전략으로 과거 일본재흥전략의 변경된 명칭임
- 주요내용은 건강수명 연장, 이동혁명 실현, 서플라이체인 첨단화, 쾌적한 도시를 위한 인프라 정비, FinTech의 5대 신성장 전략에 집중 투자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제조업 강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등의 사회과제, 건강보험 의료정보 활용 등에 정책적 자원을 집중할 것임

■ 건강수명 연장 추진 목적은 보건·의료·간병분야에서 ICT,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관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임

- 일본 정부는 의료와 기술혁신을 통해 일본 고령자가 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평생현역사회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未来投資戦略 2017, 일본 내각부(2017. 7. 18)

2) 부제 Society 5.0 시행계획 보고서

3) 2016에 신설됨

■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현재 산재해 있는 건강, 의료, 간병 데이터를 개인이 평생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정보 활용기반을 2020년까지 구축함

- 주요 내용은 전국보건의료정보네트워크⁴⁾와 건강의료데이터플랫폼⁵⁾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함
- 차세대의료기반법(2016)⁶⁾에 근거한 의료정보 이용 인증사업자를 도입하여 의료정보를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함
- 건강보험 가입자의 온라인상 자격확인 및 사회보장번호(ID)를 도입하여 2020년부터 실시함

■ (질병예방에 보험자⁷⁾와 기업 참여 촉진)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운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검진을 공시, 인센티브 지원 강화, 기업에 종업원 건강점수 통지 등의 정책을 강화함

- 가입자의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건강지도 실시율 공시를 각 보험자에게 의무화하고 실시도에 따른 건강보험자에 대한 지원금 가산·감액률을 $\pm 10\%$ 로 확대하는 등 질병예방 인센티브를 강화함
- 기업이 종업원 건강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 등이 2017년 중에 종업원의 건강정보(건강상태, 의료비, 건강에 투자 상태) 등을 점수화하여 경영자에게 통지할 예정임

■ (원격진료, AI 개발 및 실용화) 대면·원격진료 병행을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용 AI를 개발 및 상용화하여 도입 성과를 진료수가에 반영할 예정임

-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지도를 위하여 대면·원격진료 병행을 활성화하여 성과가 있을 경우 진료수가에 반영할 예정임
- 보건의료용 AI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영상진단지원, 의약품 개발, 수술지원, 게놈의료, 진단, 치료지원, 간병, 인지증 등 6개 영역을 확정하고 조기에 상용화를 실시함
- AI 클라우드 환경 정비 및 인증 시스템 구축, AI와 연계된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을 정비, 의사가 AI를 활용하여 진료할 경우 그 성과를 AI를 진료수가에 반영할 예정임

4) 개인 생애의료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건강관리, 진료, 요양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5) 연구자·민간·보험자 등이 보건·의료·간병 등의 빅데이터를 개인·질병력별로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6) 주로 의료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률임

7)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조합, 협회건보, 건강보험조합 등 공적건강보험 운영주체를 의미

■ (과학적 간병제도 실현)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병서비스 개발과 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간병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요양수가에 반영할 예정임

-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간병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반을 구축하며, 입증된 간병서비스를 후생노동성에 공시하여 안내함
- 간병로봇 등의 이용에 관한 효과를 검증하여 요양수가에 반영하고 투입인원·설비기준을 마련함
- 간병로봇 이용자의 만족도를 재고할 수 있도록 수요자 니즈에 부합한 로봇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육성 및 배치할 계획임

■ 일본 정부는 건강수명 연장 전략이 완료되는 2025년부터는 의료·정보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개념의 건강·의료·간병 시스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원격진료에 의한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 의료정보 및 AI를 활용한 진료 편의성 증가, 최적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요양시간 경감 등으로 국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환자 편의성을 위한 미래투자전략 초안에서 제안된 혼합진료(보험급여와 보험비급여 동시 이용)는 여당의 반대로 건강수명 연장정책에서 제외됨 **kiri**